SP 2016-9-282

제7회
교양교육 담당 보직교수 및 교직원 공동숙의

일시 2016. 05. 20.(금) 13:00~16:50

장소 부산대학교 제2사범관(701) 10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제7회 교양교육 담당 보직교수 및 교직원 공동숙의

일시: 2016. 05. 20.(금) 13:00~16:50
장소: 부산대학교 제2사범관(701) 102호

사회 : 신미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

일 정	주 요 내 용	발표자
13:00~13:20 (20분)	**등록 및 접수**	
13:20~13:30 (10분)	**개회사**	
13;30~13:40 (10분)	**환영사**	**김회용** 원장 (부산대 교양교육원)
13:40~14:20 (40분)	**교양교육의 위상 변화와 교육구조의 변모**	**손동현** 원장 (한국교양기초교육원)
14:20~14:40 (20분)	질의응답	
14:40~15:20 (40분)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유기웅** 교수 (숭실대)
15:20~15:40 (20분)	질의응답	
15:40~16:20 (40분)	**바람직한 교양교육 기관의 요건과 유형**	**정인모** 교수 (부산대)
16:20~16:40 (20분)	질의응답	
16:40~16:50 (10분)	**폐회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CONTENTS

1. 교양교육의 위상 변화와 교육구조의 변모 ——— 1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대전대학교 석좌교수

2.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 17
| 유기웅 | 숭실대학교 교수

3. 바람직한 교양교육 기관의 요건과 유형 ——— 39
| 정인모 | 부산대학교 전 교양교육원장

※ 이 자료집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http://konig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양교육의 위상 변화와 교육구조의 변모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대전대학교 석좌교수

1. 기술과 제도: 그 구조와 기능

자연 상태로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결함투성이의 특이한 동물인 인간이 모든 생명체들 위에 군림(?)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본능에 의거한 자연적 삶의 결함을 극복하고 이를 뛰어넘는 제 2의 자연, 즉 문화의 세계를 구축한 덕분이다. 여기서 지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것은 물론 명백한 사실이다.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 문화세계의 구축에 꼭 필요로 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활용하여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생활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전자는 도구와 기술의 발달로 실현되어왔고, 후자는 관습을 토대로 도덕적 법적 규범을 구현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실현되어 왔다.

모든 도구나 기계장치는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 강화, 확대하는 것으로, 그것이 발휘해야 할 특수한 기능에 따라 역시 특수한 구조를 갖는다. 구조와 기능 사이엔 이렇듯 본래 불가분의 연계가 있거니와, 이 연계성이 약화되거나 단절되면 그 즉시 그 도구나 장치는 폐기되거나 개선된다.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 강화,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 도구나 기계장치의 출현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먼저고 구조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후적으로 구안(具案)되는 것이다. 한반도가 그리 광활한 공간도 아닌데, 그런데도 남북으로 위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가옥구조가 달라지는 가까운 예를 보더라도 이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능과 구조의 선후관계는 규범과 제도를 골격으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동체적 삶의 목적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공동체 운영의 기능적 내용이 요청되면, 이 요청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공동체적 규범이나 제도가 구축되기 마련이다. 공동체의 궁극적인 존립 이유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겠지만, 지역적 시대적 여건 및 환경의 차이는 공동체 운영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에서 역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과정의 기능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도 그 틀을 달리 할 것이다. 물질적 삶에 여유가 없고 공동체 성원 다수가 교육을 못받아 문맹이던 시대에 합리적 사유 능력은 소수 귀족에게만 허용되었기에 그런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적 상하관계가 공동체의 모든 규범과 제도에 확실히 반영되어 있었지만, 산업화와 더불어 물질적 궁핍을 벗어나고 교육기회의 확산으로 합리적 사유 능력이 다수의 시민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적 상하관계 대신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구현하는 규범과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안해내는 모든 유형 무형의 구조물은 이렇듯 그것이 실현해내야 할 기능적 역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발휘되어야 할 기능은 달라졌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도구나 제도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명공동체가 붕괴하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 및 사회제도의 발전이란 곧 그것이 당대의 현실이 요망하는 삶의 이상, 즉 시대상 혹은 가치관을 충실히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자기개선 혹은 자기변혁을 유연하게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조와 기능의 정합과 괴리

도구와 기술의 영역이 되었든 규범과 제도의 영역이 되었든 인간이 형성해 낸 구조물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자연적 결함을 극복하여 바람직한 문명적 성취를 거둔다. 그런데 문명적 삶의 현실에서는 요청되는 기능은 쉽게 변하지만 이 새로운 기능에 부응하도록 기존의 구조물이 변화하여 새로운 구조가 구축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기능은 미래지향적인 예견과 희망에서 오는 것인 반면 구조는 현실을 떠받치는 것으로서 기존의 통념과 관행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예견과 희망은 현실에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이나 현실의 정체성과 경직성을 뛰어넘으려는 진취적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반해, 구조의 변화 내지 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은 대체로 종래의 구조 내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지도층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역사의 발전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구조와 기능 사이의 정합 혹은 괴리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구조가 개선되거나 쇄신된다 해도 여기엔 기능에 대한 기대와 요망의 변화보다도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양자의 변화에 걸리는 시간차의 장단 여부도 역사 발전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도구와 기술의 영역에서도 기능과 구조 사이에 이와 같은 문제가 개입될 것은 부인하기 어렵겠지만, 특히 규범과 제도의 영역에서는 저 양자 사이의 괴리 문제 또는 시간차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요청될 때, 그것이 개발만 된다면 낡은 기술에 매달려 있고자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종래의 기술로 이득을 보던 구성원들이 많을 때 이들은 한 동안 변화에 동참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겠지만, 새로운 기술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망만 서면 새로운 기술을 더 이상 거부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규범과 제도의 영역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우선 이 영역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망과 기대가 진정 문명적 성취에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신념'이 '물리적 사실'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이 아니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확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설사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망이 변화된 시대상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해도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부분의 '기득권' 보유자들은 이를 구실로 규범과 제도라는 구조의 개선이나 쇄신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저항

을 한다. 기술의 발전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수용하는 규범과 제도의 정착이 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교육환경의 변화: 기술-욕구-사회상의 변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격변이 교육활동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식자들 사이에 대체로 널리 퍼져 있는 공동인식이 있는 것 같다. 먼저 그 사회문화적 변화 중 교육환경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현상부터 살펴보자.

21세기의 현대적 사회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은 지능의 강화인 "정보기술"(IT)과 감각의 확장인 "컴뮤니케이션기술"(CT)을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하나의 기술로 융합한 데에 그 위력이 있다. 이 기술융합은 사유와 지각의 융합 및 호환(互換)을 비생명적 물리적 공간 속에서 실현시킴으로써 문명의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이 "디지탈" 기술은 한편 컴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멀티미디어"를 개발,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Ubiquitous 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토대로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ty)을 출현시켰다.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Ubiquitous Communication)은 자연세계의 시공적 제약을 최소화시키며, 가상현실(Virtual Realty)은 아예 이를 넘어선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근본방식이다. 시간적인 세계경험에서 근본 원리는 시간적 선후를 거스를 수 없다는 순차성(順次性)이고, 공간적인 세계경험에서 근본 원리는 두 개의 사물이 동시에 한 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는(마찬가지로 한 사물이 두 공간을 동시에 차지할 수 없다는) 독점적 배타성(排他性)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존재로서 자연적 현실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두 원리를 엄격히 따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태에서 원인-결과의 고리를 찾으려는 인간의 인과적 사유는 시간의 순차성에 대응하는 생존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고,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논리적 사유도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세계의 공간적 배타성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컴뮤니케이션"에서는 시간적 순차성과 공간적 배타성이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가상현실"이란 시간경험에서 순차성 대신 동시성 및 즉시성이, 그리고 공간경험에서 매개성(간접성) 대신 무매개성(직접성)이 구현되는 곳이므로 자연현실에서의 시공적 원리가 더 이상 경험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삶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시공체험의 방식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한, 세계를 향한 인간의

욕구와 이의 충족을 위한 행동의 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 인간의 생존조건인 동시에 한계이던 시간적 순차성과 공간적 배타성이 무력해짐으로써 인간의 욕구 자체가 동시성과 직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그 충족의 방식 또한 동시적 직접적인 것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해 여러 가지 욕구의 동시적 충족에 대한 기대 또한 일상화된다. 즉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만, 혹은 시간적 지속이나 대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욕구충족이 이러한 종래의 전통적 행동 방식을 넘어서서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가지 욕구의 즉시적 무매개적 충족 가능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이한 욕구들의 총체적 동시적 충족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다. 이를테면 시각적 청각적 의사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각적 청각적 욕구의 동시적 충족 가능성은 당연한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욕구 충족의 기대는 이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복수의 여러 "기술들"이 통합하게 되고 이로부터 새로운 융합기술이 등장하게 된다. 기술간의 경계가 약화되어 고유 영역이 붕괴되고 그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로 융복합화한다는 것이다. 근래 어떤 기술 분야에서든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이와 연계되지 않는 기술개발이란 생각하기 어렵게 된 사정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기계공학 기술, 전자공학 기술, 재료공학 기술, 화학공학 기술, 광학기술 등이 융합되어 나온 휴대전화 제조기술은 그 대표적인 예다. 통신 기능 뿐 아니라 정보검색-처리-관리 기능, 카메라 기능, 게임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는 휴대전화의 제조는 어느 한 가지의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술의 융복합은 자연히 산업의 융복합 현상으로 이어진다. 휴대전화의 제조산업에는 이제 통신산업만이 아니라 정보산업, 카메라산업, 게임산업, 금융산업 (그리고 조만간 운수산업, 유통산업) 등이 한 데 어울어져 융복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의 융복합; 보험산업,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융복합; 전력, 가스, 석유, 석탄산업등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 수송 및 운수 산업의 융복합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조만간 이 모든 산업들이 총체적으로 융복합하는 시대가 와서 "산업종합적"인 기업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을 추구한다. 정보시대의 현대인이 융복합적 욕구충족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융복합적 기술이 개발된다면, 산업형태도 이에 걸맞는 변화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

세계체험의 근본이 되는 시공체험 양식이 달라지고, 특히 컴뮤니케이션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오고,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급의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에 "공동체적 삶의 유목화" 현상이 나타난다. 세계화란 가장 넓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목화 현상에 다름 아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인격적 인간적 사적 관계가 축소, 약화, 피상화된다. 개인의

고립화 현상이 심화된다. 혈연적 지역적 연고에 의한 공동체적 유대도 약화, 와해한다. 사회 구성원의 개체화가 강화된다. 그 대신 익명적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 해체가 늘어난다.

공동체 삶에서는 계층의 다원화,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조직의 탈위계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된다. 사회조직은 점차 축소된다. 거대하고 강고한 고정적 피라미드형 체계에서 작고 유연한 유동적 네트워크로 변화한다: 중앙과 주변이 구분되고 주변은 중앙으로만 연결되어, 정보가 집중되는 중앙이 주변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중앙집중화적 조직에서 정보를 고루 공유하는 모든 노드(node)가 서로 연결되어 어떤 노드도 지시 통제를 하거나 받지 않는 분산적 네트워크로 바뀐다(탈중심화). 그 결과 사회적 활동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회 조직의 그 폐쇄적 독자성이 와해되는 가운데 개방적 관계가 지배한다(탈영토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문화사회적 파장은 이상과 같이 광범하고도 심대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사회적 변화에는 지식사회의 지형 변화가 그와 상호작용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자리한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발전, 그로 인한 공동체 삶의 변화 등은 지적 탐구에 광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4. 지식사회와 교육내용의 변화

그렇다면 지식사회에는 이 변화가 어떤 후속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을까? 지식사회의 지형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1) 지식이 장기간에 걸쳐 어렵게 창출, 전수,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매우 용이하게 산출, 복제, 유통, 소비된다.
2) 산출되는 정보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며, 이렇게 생산되는 정보의 유통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
3) 문맥적 역사가 은폐된다는 의미에서 기원이 소실된, 파편화된 정보들이 범람하여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일이 어렵다.
4) 정보의 효용기간, 즉 수명이 급속히 단축된다.

이 현상들은 지식사회가 고정된 지식의 비축과 독점에 머물지 않고 유동적 정보의 유통과 공유를 향해 개방된다는 전향적 함의도 갖지만, 그보다도 그 다원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가로 지식이 우리의 실천적 행동에서 선도적(先導的)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방향감각을 상실함을 뜻하기도 한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이러한 트렌드를 강화시킨다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1) 첫째,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 사고능력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 가운데서 적실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능력, 새로운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능력 등이 그 내용이요, 이는 결국 주어진 사태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귀착된다.

2) 둘째, 자신의 사유내용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어적 구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펼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3) 셋째,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전체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통찰력이다.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문제는 대체로 여러 지식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다. 이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없으면 부분에 관한 전문지식도 무력해지기 쉽다. 따라서 문제연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넷째,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능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방식이란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해 각종의 정보를 그 질적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수학적으로 연산 처리하는 방식이다. 질적 성격이란 감각적 지각의 대상으로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이고, 바이너리 코드로 처리하는 수학적인 연산은 정밀한 사고 활동이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을 넘나들 수 있기 위해서는 정서적 감응능력과 합리적 사고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며 나아가 이 둘이 함께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 초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술이 도서보급을 통해 의사소통, 정보습득의 양식을 논리적 사유의 원리에 따르게 했다면, 21세기의 디지털 기술은 그와 반대로 논리를 넘어서는 총체적 지각 양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유와 감각의 호환기술은 이제 감각내용의 논리화, 사유내용의 감각화를 수행함으로써 합리성의 문명을 용해시키고 그 자리에 초합리성의 문화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적 지형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합리적인 과학적 수학적 사유의 능력뿐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직관, 도덕적 성찰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5. 변화의 핵심: 새로운 수요

이러한 사정을 대학의 고등교육에 연관시켜 보자.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전공교육, 즉 "특화된 전문직업교육"에만 열중해 왔지, 교양교육, 즉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은 매우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응용학문 분야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전공학업에 투입하도록 요구해 온 것이 그것이다. 한국의 대학에서 이러한 편향된 교육이 널리 시행되었던 데에는 물론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강도 높은 산업화를 통해 급속히 국가사회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문물을 가능케 하는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

을 단기간 내에 대폭적으로 학습-수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도 산업화에 이어 소위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사회"로 이행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산업화에서 요구되었던 "특정 분야의 기성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대로 된 교양교육, 즉 포괄적인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이 곧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오늘의 정보사회에서는 지식도, 기술도 융합, 종합화의 길을 가야 더 큰 탐구적 성과를 거두고, 산업도 분화, 전문화보다는 융합, 종합화의 길을 가야 더 큰 산업적 성과를 가져온다. 각 전문 분야들의 지식도 하나의 문제 앞에서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 되기 쉽다. 오늘의 문화사회적 상황은 여러 문제들이 서로 결합되어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기 때문이요, 이는 또 문화사회적 삶이 영역별로 분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융합되어 통합되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가 융합됨은 물론,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고 예술과 공학이 융합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총체적 맥락 속에서 그 맥락과 더불어 한꺼번에 다가온다면, 문제해결의 방식도 총합적일 수밖에 없다. 각 전문분야들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지적 연결지평"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양교육은 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래 융복합교육의 성격을 갖는 교양교육이 바람직한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융합교육의 기능-역활에 대한 새로운 기대

그렇다면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대학의 융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그 토대가 될 교양교육의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대학교육 전체가 기초능력교육, 다학문적 학제적 융복합교육으로 정향을 새로이 하는 것과 궤를 함께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학술적 내용을 그 융복합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까? 그 내용은 우선 학문적 가치의 보편성을 고려해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성과로 구성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내용은 배제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전문 직업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꼭 지켜져야 한다. 왜 그럴까?

첫째, 인간의 삶의 터전인 세계를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현실 속의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떠날 때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순수한 기초학문의 탐구에서 가능한 것이다. 존재의 원리를 포함한 존재하는 세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토대로 한 철학적 논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자기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개개인의 인격적 자기정체성의 확립은 의미 있는 반성적 삶의 전제조건이다. 인간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모든 인문학적 탐구의 과제인 바, 인간관의 확립은 문학, 역사, 철학의 탐구 성과를 토대로 가능한 일이다. 주제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인간학, 특히 철학적 인간학은 이를 위한 명시적 탐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주어진 사실의 세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차 사실의 세계로 실현될 가능적 세계, 즉 가치의 세계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이끄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사실의 세계가 인간을 압박하는 세계라면 가치의 세계는 인간을 유혹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어떤 가치가 더 우위에 놓이는 가치로 우선시되어야 할지, 이 문제는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다. 가치관의 확립이란 이러한 가치 간의 서열 내지는 우선 순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치관의 확립도 기초학문, 특히 인문학의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산업화 과정을 일정 수준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사회는 이제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복사'해다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번영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사회는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하여 창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응용의 방법이 아닌 원리 자체에 대한 순수한 탐구의 노력이다. 즉 기초학문의 '토대연구'이다. 특정의 실용적 목적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그러한 다양한 실용적 지식의 창출을 취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양교육이라면 교양교육이 토대연구의 성과를 내용으로 하는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른 맥락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산업화에서 요구되었던 '특정 분야의 기성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 문제다. 오늘의 정보사회에서는 지식도, 기술도, 산업도 분화, 전문화보다는 융합, 종합화의 길을 가야 더 큰 산업적 성과를 가져온다. 각 전문 분야들의 지식도 하나의 문제 앞에서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 되기 쉽다. 오늘의 문화사회적 상황은 여러 문제들이 서로 결합되어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기 때문이요, 이는 또 문화사회적 삶이 영역별로 분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융합되어 통합되기 때문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그 총체적 맥락 속에서 조망할 수 있는 '지적 연결지평'이 요구되는 바, 그것은 문자 그대로 특정의 전문분야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원리에 대한 순수한 탐구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응용학문이 현실 속에서 특정한 실용적 목적을 갖는데 반해 기초학문은 실용적 이해득실을 떠나 인간과 세계의 탐구 그 자체를 위해 탐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위 '순수학문'이다. 이 때문에 기초학문의 탐구 범위와 그 성과의 타당 범위는 응용학문의 그것에 비해 매우 광범하다. 이것이 가능

한 것은 기초학문이 그 학문의 기초를 다른 학문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 구축하기 때문이다. 응용학문이란 바로 이 기초학문에서 그 학문의 기초를 찾는 학문이다.

탐구 영역의 광범성, 탐구 내용의 보편성 및 근원성은 많은 다양한 특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그 적용가능성의 무제약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근본 취지, 그 어떤 특정한 직업적 요구나 특정 집단이나 상황의 요청에 매이지 않고 단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녀야 할 지혜와 능력과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육이 날로 더 복잡하고 광범해지는 문제복합체에 대응해 융복합적 식견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초학문의 탐구성과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 낡은 교육기능 vs 새로운 교육기능: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관계

7.1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불균형

한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군을 흔히 교양, 전공, 선택으로 3분하는 것이 널리 통용되어온 관례였다. 그러나 "선택교육"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실은 그것도 전공교육이거나 교양교육이었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실로 이 양자의 위상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그 동안 대학교육은 현실적으로 전공교육의 주 과제를 '특화된 전문직업교육'에 두고 여기에만 열중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을 지향하는 교양교육은 등한시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강도 높은 산업화를 통해 급속히 국가사회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문물을 가능케 하는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 내에 대폭적으로 학습-수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전공학업이 '특화된 전문직업교육'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자명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등 기초학문분야에서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의 여파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이 분야에서 점 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조차 교양교육을 희생시켜 전공교육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은 직업교육을 선호하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교육수요를 외면하고서라도 기초학문의 학문적 영역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신입생 모집단위를 '학과'로 고정하려는 의도가 유난히 이 기초학문분야에서 더 강렬한 것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찬동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일이다.

7.2 기초학문분야의 전공교육

기초학문 분야, 특히 인문학이나 기초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교육과정에서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래의 교과과정, 즉 대학원 교육으로 연장되는 교육과정에 변양을 가하여, 대부분 학생의 실질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를 가할 때, 변양된 교육과정이 과연 그 기초학문의 전공교육이 갖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해당 학문분야의 전공교육을 그 본래의 모습대로 지키게 되면, 대다수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 수요를 외면하는 꼴이 되고; 후자에 부응하자면, 본래의 전공학문 교육 자체가 변질하게 된다. 이것이 극복해야 할 문제다.

7.3 본원적 교양교육의 내용

전공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란과 비교해 볼 때 교양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란은 사뭇 격렬하고 심각하다. 그 주된 이유는 '교양'이라는 전공학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전공학과의 교수든지 모두 일가견을 갖고 발언할 수 있다고 보며 그 견해가 전공학과들 사이에서 크게 갈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대부분의 전공학과에서 교양교육의 총량을 가급적 축소하여 전공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교양교육에 대한 피상적 편견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교양교육'이라는 명칭이 다의적으로 이해되어 교양교육의 이념 및 목적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여러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교양과목의 설강에도 뚜렷한 원칙을 세우기란 어렵다.

② 교양교육은 학문적 엄정성이 떨어져도 무방하다. 즉, 교양과목들은 입문적 초급 수준의 과목들이므로 본격적인 학습과 연구가 실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연찬 중에 있는 젊은 강사들이 담당해도 무방하다.

③ 교양 과목은 일반인이 취미나 일상생활의 필요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나, 혹은 시사성이 있는 주제를 적절히 다루는, '일반인의 교양'을 위한 것으로 '비학술적인 것'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④ 교양 학업은 대학교육에 꼭 필요한 긴절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여분의 교육'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편견이 바로 전공교육에 대한 교양교육의 심각한 열세의 근원이다.

7.4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관계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관계를 설정함에도 위에서 말한 편견은 암암리에 작용한다.

첫째, 편견 ①과 관련하여 교양교육과 기초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혹은 안 하는 잘못이 있다. 예를 들어 학술적 글쓰기나 스피치, 혹은 토론, 영어나 기타 외국어, 미적분학이나 일반 물리학 등 이른바 기초자연과학 과목 등은 사실 교양교과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초학업과목이다. 이들은 대학교육 전반, 혹은 전공교육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다. 그럼에도 이 과목들을 모두 '교양과목'으로 취급하여 교양교육의 총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1)]

둘째, 역시 편견 ①과 관련하여 교양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전공교육의 지원 내지 보좌에 있다고 보고 교양교과목을 이런 관점에서 설계 운영하려는 잘못이 있다. 이를테면, 공학도들에게 "공학통계", "공학회계", "기술과 법"등 공학과 가능한 한 동질감과 친근성이 있는 과목을 수강케 하려는 것은 교양교육의 진의를 희석시키는 잘못이다.[2)]

셋째, 인문학이나 기초사회과학 분야의 학과에서는 오직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는 전공교육에만 관심을 갖지, 다수 학생을 위한 교양교육은 외면하려 한다. 대학마다 예외 없이 학문적 숙성이 아직 일천한 젊은 강사들이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중견 전임교수들은 오직 전공과목만을 담당하려 하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현상이다.[3)]

7.5 바람직한 대학교육의 구도: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균형과 수렴

그렇다면 그간 전공교육의 중압에 깔려 숨죽여 왔던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어떤 관계를 수립해야 그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첫째, 위에서 말한 편견 ①, ②와 관련해, 교양교육의 의의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교양교육의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교양교육의 내용은 학문적 가치의 보편성을 고려해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로 구성해야 한다. 교양교육의 영역이 이들 분야의 본령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은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를 일

1) 특히 이공계의 경우 대개는 교양교육의 내용이 거의 모두 이런 성격의 '기초학업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수가 160에서 130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전공교육의 총량을 가급적 줄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결국은 '교양교육'의 이름으로 '전공기초교육'을 수행하려는 편법을 찾아낸 것이다.

2) 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전문교양"이라는 희한한 형용모순의 용어를 만들어, 이런 성격의 과목을 설강하라고 각 공과대학에 강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학생보집단위를 광역화했을 뿐 학부도 없는 사이비 학부제를 10여년간 시행한 결과 특히 기초학문분야의 전공교육이 황폐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학부제'를 시행하자는 전향적 입장보다는 차라리 학과제로 되돌아가자는 복고적 입장이 대학마다 더 우세한 이유도 이 점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 교양교육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하자면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전공교육과 기초학문이 참여하는 일반 교양교육을 연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 1단계로는 전공과 교양 영역에서 "중복 설강" (Double Listing)을 하는 것이 유효한 한 방안이 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구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즉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지 않고 오직 대학교육과정만이 있어 모든 학생이 인문학 분야, 기초사회과학 분야 및 기초 자연과학분야에서 균형있게 일정한 양의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안이 시행되려면, 학사과정에서는 학생이 어느 특정 전공학과(Department)에 소속되어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한 학부(Faculty), 혹은 더 이상적으로는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에 속해 '자유롭게' 학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기초학문분야의 고전적인 연구 성과가 교양교육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새로이 등장하는 문화사회적 문제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 성과나 이질적인 학문분야들을 가로지르며 주어진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논구하여 얻는 연구 성과도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즉 현대문명, 환경,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신과학 등 새로운 주제영역의 탐구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편견 ③과 관련하여 학문적 성격이 약한 '시민생활적 교양'을 위한 과목이 청산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정서적 도덕적 심성을 성숙시키는 '체험교육'을 비정규교육과정에서 정량적 성적 취득과 무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

넷째, 흔히 교양교육은 저학년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는 교양교육이 학문적 수준이 낮고 학업이 용이한 것이라는 편견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으로 오히려 고학년에서 전공교육과 나란히 시행되어야 그 교육적 성과를 얻을 것이다.

8. 새로운 교육기능-새로운 교육구조

교육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변모한다는 것은 교육기능이 변화함을 뜻하는 것이다. 모두에 우리가 언급했던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이제 교육구조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할 시점이다.

직업능력함양이라는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학술성의 추구라는 대학의 본래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교육구조를 모색, 정착시키는 것이 오늘의 한국대학이 안고 있는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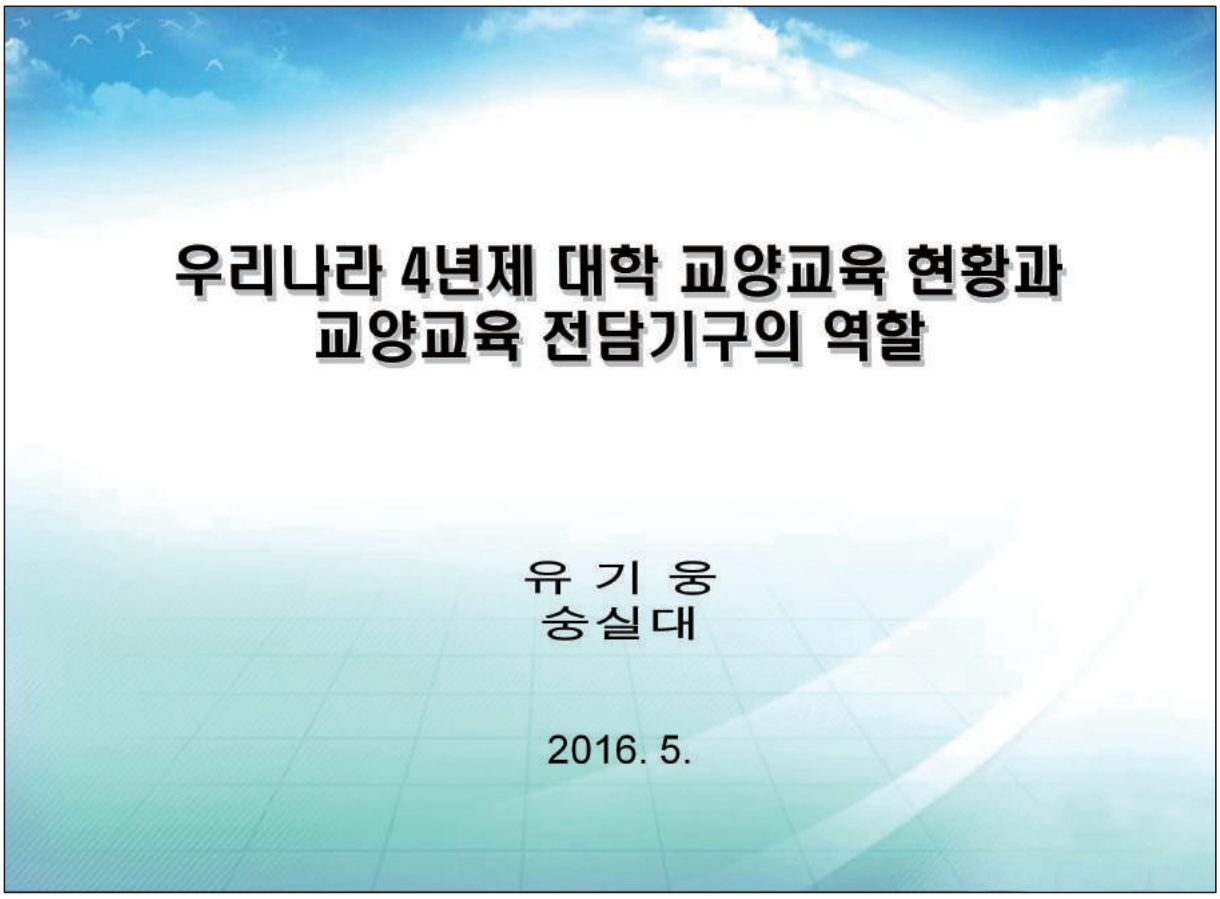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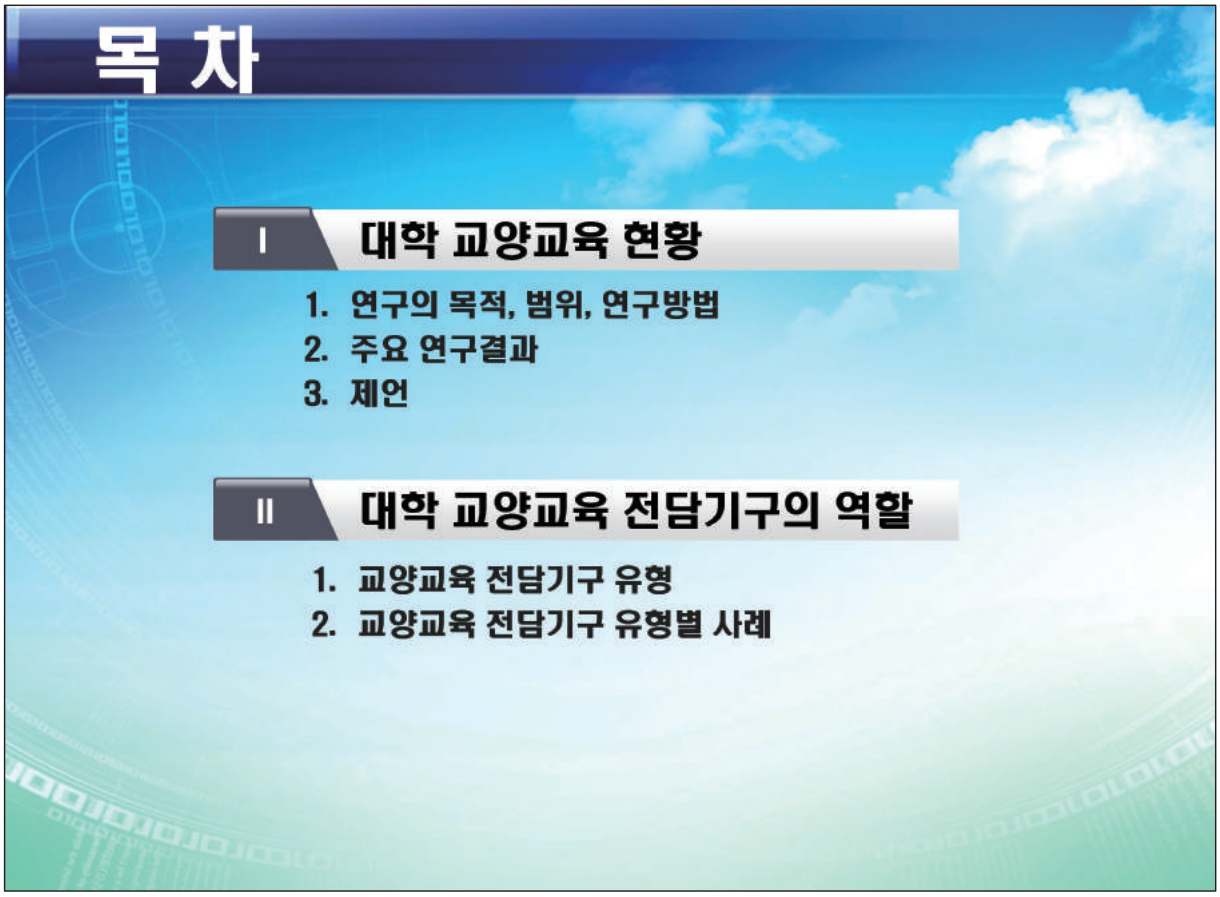
1) 대학교는 인문학-기초사회과학-기초자연과학을 망라하는 학문분야 학과들로 구성된 '학부대학'/'문리과대학'/ Liberal Arts College를 설치한다. 학생 수가 적은 소형의 대학인 경우, 이 대학만 설치할 수도 있다.
2) 이 대학에서는 직업교육이 아닌 기초학문교육을 실시하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이 교육이 곧 종래 교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오던 교육이 되도록 한다. 즉 이 대학 외의 타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이 대학 학과들의 전공교과목들 중에서 일정 수의 과목을 학문분야별로 균형을 갖춰 수강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기초학문분야에서는 점차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구분을 없애나간다.
3) 이 대학 내의 학과들은 그 학과에 반드시 '전공학생'을 '전속'시키려 하지 않는다. 즉 신입생 모집단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며(이를테면 계열별 모집, 전 대학단위 모집 등), 전공을 정해 입학한 학생이라도 추후 자유롭게 타 학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부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등의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이 학과들은 전공학생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도 학과를 유지하고 학과 교수진도 (강좌수 등) 교육수요에 맞게 보강한다. 학문탐구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수 별로 특별지도를 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대학원 과정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기능을 수행할 있도록 준비한다.

2.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 유기웅 | 숭실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유 기 웅
숭실대
2016. 5.


목 차
I 대학 교양교육 현황
1. 연구의 목적, 범위, 연구방법
2. 주요 연구결과
3. 제언
II 대학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1. 교양교육 전담기구 유형
2. 교양교육 전담기구 유형별 사례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연구 목적 및 범위

-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기초자료를 토대로 교양교육 질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근거 마련
- 교양교육의 목적적 측면: 교육 목적에 대한 이해
- 교육내용의 구조적 측면: 교육구조에 대한 이해
- 교양교육 운영적 측면: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이해

3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연구 방법

문헌분석

설문조사

조사연구

- 대학 교양교육 기초 자료 마련
- 교양교육 질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4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국 67개 4년제 대학(국립 16교, 사립 50교, 공립 1교)

• 설문조사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명의 공문 발송(2014년 7월)

• 설문조사 목적
-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교육목표, 교육구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의 기초자료 수집

5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문헌분석 및 기타 조사

• 문헌조사
- 교양교육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관련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문서 등)

• 기타 조사
- 대학알리미 대학별 사이트, 대학별 홈페이지

6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주요결과 - 교양교육 목적

자주 등장하는 단어 빈도 순

- 인간, 인간성, 인격형성, 인성교육, 인성함양
- 국제화, 국제경쟁력, 글로벌, 세계화, 세계시민
- 기본기, 기초소양, 기본능력, 기본역량, 기초소양, 기초교육
- 창의성, 창조, 창의 인재
- 지식, 지신인, 지성, 지성인
- 교양, 교양인, 교양지식, 교양형성
- 문화, 문화인, 문화교육, 문화시민
- 봉사, 봉사정신, 봉사인, 사회봉사

7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주요결과 - 교양교육 목적

- 교양교육 목적 10가지 유형(손동현 외, 2012)과 대체적으로 일치
  - 기초지식, 지적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세계이해-학문탐구, 도덕성, 인성 함양, 의지적-사회적 실천, 정서적-심미적 성숙, 현대의 시대적-문화사회적 상황, 실용적 지식-기술 관련, 종교적 신앙
- 교양교육 목적/목표와 대학의 교육이념(건학이념), 교육목적 및 목표와 대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8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주요결과 - 교양교육의 구조와 내용

- 개설교과목 비율: 전공 69.3%, 교양 18.69%
  - 전공영역: 국공립대: 64.12%, 사립대 71.21%
  - 교양영역: 국공립대: 18.6%, 사립대 18.7%

- 인문사회계열 졸업이수 평균 교양학점: 33.84 학점
- 자연공학계열 졸업이수 평균 교양학점: 39.42 학점
- 예체능계열 졸업이수 평균 교양학점: 34.21 학점
- 기타전공계열 졸업이수 평균 교양학점: 38.08 학점

- 최근 3년간 개설된 신규 교과목 관련 주제어
  -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리더십, 고전읽기, 글쓰기, 문화, 현대사회, 글로벌 등

9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주요결과 - 교양교육의 방법

- 전임교원 교양교육 담당 비율(60% 미만)
  - 국공립대학: 88.2%
  - 사립대: 66.6%

- 수강생 규모
  - 21~50명: 51.7%
  - 20명 미만: 34.96%
  - 51~100명: 25.63%
  - 100명 이상: 3.37%

- 교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시행
  - 연 5회 미만: 60%
  - 5~10회: 21%
  - 10~15회: 6.5%

10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주요결과 - 교양교육 운영

- 교양교육 영역 예산 평균: 1억 8천 7백 만원
  - 전공영역 대 교양영역 운영예산 비율: 81% 대 19%

- 교양교육 담당 시간강사 처우
  - 3~8 만원[학위소지, 자체등급, 시간대 등에 따라 대학별 차이]
  - 전용휴게실, 연구실, 우수강사 인센티브, 교육연수, 교육기회 제공 등

-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설치 여부
  - 80.6%가 별도의 위원회 설치
  - 교양교육위원회, 교양기초교육연구위원회, 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의 명칭
  - 연평균 3.4회 위원회 개최, 신규과목 개설/폐지, 관련 규정 심의, 강사 선임, 교육과정 연구 등의 업무 수행

11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주요결과 - 교양교육 운영

- 교양교육 과정 개선 관련 활동
  - 강의평가 및 분석, 만족도 조사, 대학 자체 평가활동, 교강사에 대한 조사활동, 외부기관 또는 컨설팅 활동 등

-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설치 여부
  - 80.6%가 별도의 위원회 설치
  - 교양교육위원회, 교양기초교육연구위원회, 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의 명칭
  - 연평균 3.4회 위원회 개최, 신규과목 개설/폐지, 관련 규정 심의, 강사 선임, 교육과정 연구 등의 업무 수행

12

Ⅰ. 대학 교양교육 현황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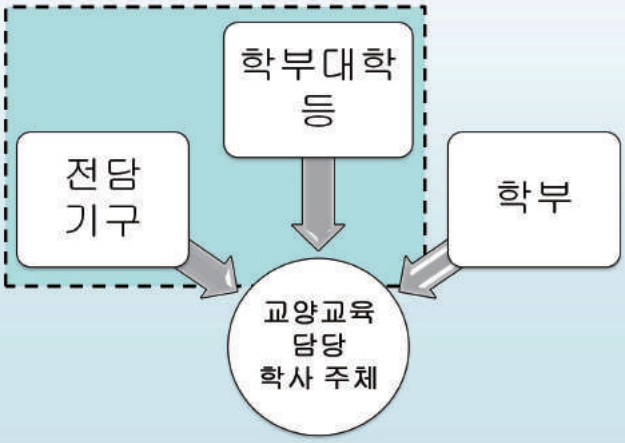
- 대학교양교육 정보공시지표 개발 및 주기적 현황 실태 파악 필요
- 교양교육 이수 학점 강화
- 교양교육교과목 분류 체계 명확화
- 온라인 교양교육 실태 점검 및 효과성 검토
- 교양교육 강사 역량강화
- 신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연구 지원 확대
- 교양교육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 유효성 규명, 우수 사례 발굴

13

Ⅱ.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교양교육 전담기구

교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 기구 또는 조직으로서 교양교육 관련 단과대학이나 학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형태가 아닌 한 대학의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김순임 외, 2012)



14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주요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기구 명칭

- 성균관대: 학부대학
- 연세대: 학부대학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 파라미타칼리지(경주캠)
-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 대전대: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H-LAC)
- 부산대: 교양교육원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서울여대: 기초교육원
-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15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학부대학에 대한 고찰

참고: 강명구, 김지현(2010)

- 학사구조에 대한 두 개의 시스템: 학부제, 학과제

- 학부제(college)
  - 대개 종합대학 내에서 학부대학(college)나 소규모 문리대학(liberal arts college)의 학사구조 형태
  - 학생들은 전공 없이 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관심 학문분야를 이수하고 2학년 정도에 원하는 전공 선택
  - 학생소속: 학부대학, 전공 프로그램(academic program), 주거대학(residential college)
  - 학생들에 대한 학사지도 매우 중요
  - 직업준비보다는 비판적 사유와 세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력을 기르도록 하는 자유교육 지향
  - 순수학문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제공

- 학과제
  - 특정 학문 영역의 심도 있는 이해와 직업준비교육에 초점
  - 학생은 학과 단위로 선발, 입학 후 특정학과에 속함
  - 기초학문 분야를 담당하는 단과대학(또는 조직)과 직업전문지식 및 응용학문을 담당하는 대학들이 병렬적으로 배치

16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학부대학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이 학과제로 부터 출발
- 1970년대 일부 대학에서 '실험대학' 체제 도입(학부제)
- 1980년대 학과제로 완전 복귀
- 1990년대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 도입
- 2000년대 학과제와 학부제 혼재(학과제 패러다임이 지배적)

-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대학, 기초교육원, 자유전공학부 등 다양한 형태의 학사구조가 혼재
  - 학부대학, 변형된 liberal arts college 형태
  - 기초교육전담기구
  - 자유전공학부
  - 기타 조직

참고: 강명구, 김지현(2010)

17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학부대학 형태의 학사구조

- 변형된 형태의 학부대학
  - 4년 과정 전체 학사구조를 담당하기 보다는 '1학년' 의 입학전 교육, 신입생 교육, 학사지도, 기초교양교육의 편성과 운영, 담당 교수 선발 및 관리 담당
  - 진정한 의미의 학부대학이 아닌 '1학년 대학' 의 성격이 강함
  - 학부대학도 하나의 다른 단과대와 병렬적인 관계
  - 기초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인식
  - 학과제 패러다임과 학부제 패러다임의 혼재

- 주요 대학
  - 연세대: 1999년부터 시행
  - 성균관대: 2005년 부터 시행
  - 대전대: 2015년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창립

참고: 강명구, 김지현(2010)

18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기초교양교육 전담기구 형태

- 행정기구와 교육기구의 중간적 성격
  - 교육조직보다는 행정조직적 성격이 강함
  - 종합대학 내에서 기초교양교육 관련 행정업무, 교과과정 연구, 개발과 평가,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기초교양교과목 개설 주관 기관이나 개별학과나 타단과대학과의 협력과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교과목 개설과 운영이 어려움
  - 전임교수, 시간강사로 교양강의를 담당하는 강의 전담인력이 소속
  - 소속 학생이 없고, 전임교원이 적으며, 주로 강의 전담교수 인력[강사, 겸임교수 등]이 소속
  - 전공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학사구조 형태

- 주요 대학
  - 서울대 , 부산대 등의 기초교육원
  -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의 교양교육전담기구

참고: 강명구, 김지현(2010)

19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자유전공학부 형태

- 기본적으로 학부제 패러다임 지향하는 한국형 학부제 형태
  - 학과, 전공 없이 입학하여 일정 탐색기간이 지난 후 전공 결정하는 형태
  - 학과제 구조 속에서 학부제 이념을 구현
  - 학부대학이나 기초교양교육전담 기구 내에 설립되기도
  - 2009년도에 전국에 20여 개 설립, 이후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기도
  - 인기학과 쏠림 현상, 정체성 불분명으로 인한 진로결정 어려움 등
  - 소속 학생은 있으나 소속 전임교수와 고유 전공과정이 구분되지 않고 종합대학 내의 허용된 자원을 활용
  - 종합대학 내에서 고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서의 어려움

- 주요 대학
  - 서울대 , 고려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 연세대 학부대학 내 자유전공

참고: 강명구, 김지현(2010)

20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기타 조직 형태

- 독자적 조직 없이 대학 본부의 학 부서[주로 교무처]에 속함
  -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과 행정적 효율성 강조
  - 교양과 전공과목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용이
- 주요 대학
  - 고려대

21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 학부대학 형태: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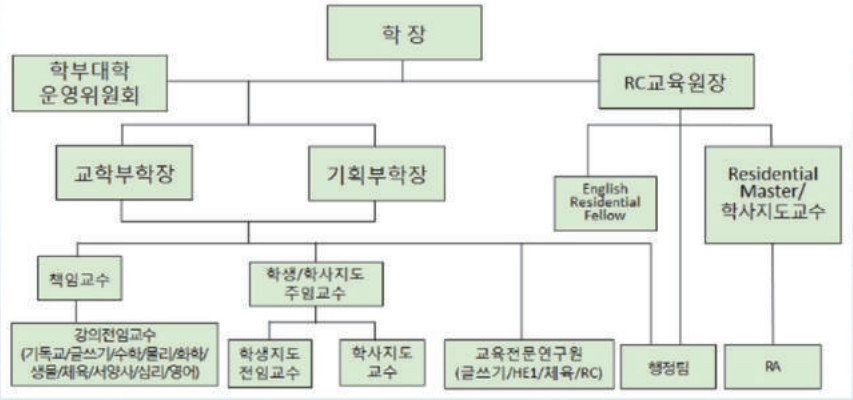
- 국내 최초로 학부대학 설립(1999년)
- 목적: 기초교양교육의 강화와 전공 학문 시작 전 대학 생활 적응(기초교양교육 + 학사지도)
- 특징
  - 1학년 대학(freshman college): 1학년생들의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교양학부(일부 계열 제외)
  - Residential College(기숙형 대학): 2014년부터 1학년 전원이 RC 생활
- 기본 운영 형태
  - 입학 후 학생들은 1년 동안 학부대학에서 개설하는 기초교양 교과목과 전공에서 개설되는 전공기초 교과목을 수강
  - 1학년 필수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전공진입,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 입학 당시 결정된 전공 혹은 전공신청 후 승인 받은 전공이 속한 단과대학으로 소속 옮김

22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 학부대학 형태: 연세대

• 학부대학 조직도



- 학장단(3명): 학장, 교학부학장, 기획부학장
- 행정팀(9명): 팀장, 과장, 직원
- RC 교육원(17명): 교육원장, 팀장, 과장, 직원, RM
- 교육전문연구원(5명): 전인교육, 글쓰기 교실 등
- 학사지도교수(15명): 계열별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23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 학부대학 형태: 연세대

• 학부대학 현황

재적생수[2015-2학기 기준, 산출일: 2015.10.1]

계열	재적생수 (합계: 3,660)
인문계열	531
사회계열	1
상경계열	329
경영계열	394
이학계열	274
공학계열	1,123
생명시스템계열	181
신학계열	51
사회과학계열	400
법학계열	1
생활과학계열	191
교육과학계열	63
간호계열	82
자유전공	37
외국인글로벌학부	2

24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 학부대학 형태: 연세대

- 기초교양교육 교육과정 구성
  - 졸업이수학점: 135(126-166)
  - 교양학점: 총 39~60(기초 12, 교양 24~36, RC 3~5), 선택교양),
    * 채플 2학점화됨

구분	개설 교과목	학점
공통기초	채플(0학점, 4학기 이수), 기독교의 이해(3학점), 글쓰기(3학점), 영어(4학점)	10학점
필수교양	9개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24학점 이상
선택교양	Residential Education 3학점(Holistic Education I, II, III 중 3학점 + Yonsei RC101 1학점) 필수	-

25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 학부대학 형태: 연세대

- RC
  - 거주형 학습-생활 공동체로서 학생들이 캠퍼스에 24시간 머물러 있음으로써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선후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목적
  - 2007년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처음 도입

- 운영 구조

26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 학부대학 형태: 연세대

• RC 교육 프로그램

구분	정규교육 섬김의 리더십 교양인의 자질함양	비교과학습 프로젝트 활동	개별지원 자문시스템
전인교육	· 사회봉사(HE1) · 문화예술(HE2) · 체육(HE3)	· 공동체 인식 및 인성	-
국제화 교육	· 글로벌 리더십 교육 · 외국어 집중 교육	· 문화적 다양성 체험 · RC 외국인 교수와의 비교과 활동	· 대학 영어 튜터링 서비스 (College English Tutoring Service)
창의교육	· 창의적 융·복합 교육 · 책 읽기 및 토론 교육	· 교과와 비교과 통합교육 · 거주형 학습 생활공동체 활성화 · 현장 체험형 탐구 프로젝트	· 창의적 리더 프로그램 (Creative Leader Program)

참고: 송혁준 외(2014)

27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기숙형 대학(RC)

• 해외 주요 대학
- Cambridge: 약 12,000명의 학생이 31개의 RC에서 생활
- Princeton: 약 8,000여명의 학생이 6개의 RC에서 생활(1-2학년 학생 관리에 초점
- Wellesley College: 2,300여명의 학생(1~4학년)이 21개의 기숙사에서 생활. 신입생은 의무

• 국내 주요 대학
- 연세대: 3,700여명의 학생(1학년)이 12개의 RC에서 생활
- 서울여대: 재학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1학년 3주, 2학년 2주) 바롬인성교육관에 입관시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 지향
- 건양대: 신입생 약 1000명을 RC형태로 교육
- 대전대: 혜화 레지덴셜 칼리지(예정)
- 동국대(경주, 파라미타칼리지): 2014년 부터 신입생 560명 대상
- 전북대: 1학년 100여명 대상(신청제)

참고: 송혁준 외(2014)

28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변형된 Liberal Arts College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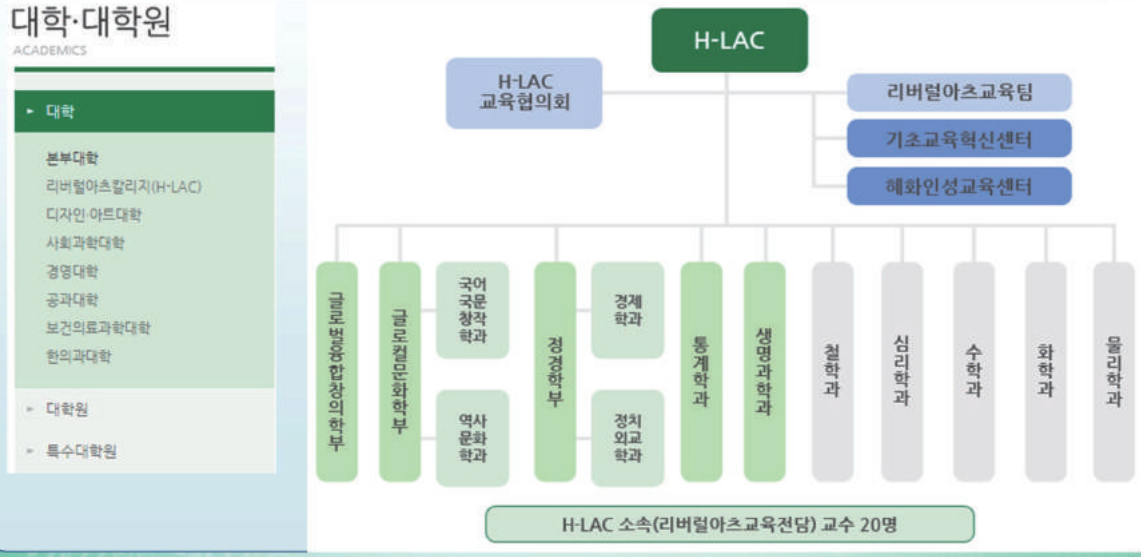
- 일명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 형태를 지칭
- Liberal Arts College: 직업적 목표와 관련 없는 다양한 자유인문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으로 주로 미국과 캐나다 많이 있음
-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
  - 대학 전체를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교육이념과 지향점을 수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종합대학내 학사구조
  - 직업준비훈련이 아닌 기초학문분야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다루는 교육과정 운영
- 국내 주요 대학: 대전대학교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H-LAC)

29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Liberal Arts College 형태 - 대전대

- 기존의 교양학부대학과 기초학문문야 전공학과를 통합하여 설립
  - 5개 학과는 모집 정원 없음



30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Liberal Arts College 형태 - 대전대

• 교육과정 이수체계

2015, 6학년도 입학생 교양과목 학점배정표

구분	대영역	소영역		이수학점			
				H-LAC학과		비 H-LAC학과	
				일반학과	기초과학 이수학과	일반학과	기초과학 이수학과
교양 필수	리버럴아츠 기본	기초학업	의사소통	6	6	6	6
			IT활용	2	2	2	2
			외국어	6	6	6	6
			기초과학	-	6	-	6
		기초체력	기초체력	1	1	1	1
		혜화인성	나(비전탐색)	2	2	2	2
			너 / 우리	2	2	2	2
		균형중점	문학과 예술	15	9	15	9
			역사와 철학				
			정치·경제와 사회				
			과학과 기술				
	리버럴아츠 핵심	인문학		24	24	12	12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양필수 소계				58	58	46	46

31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Liberal Arts College 형태 - 대전대

• 교육과정 이수체계

교양 선택	핵심역량 보완	인문적 사고	24	24	18	18
		과학적 사고				
		의사소통				
		글로컬				
		자기주도				
		협동				
		전문 (전공연계)				
일반선택	일반선택					
교선/일선 소계			24	24	18	18

• 교양교육과정: 필수(58학점) + 선택(24학점) = 82학점

32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기초교양교육전담기구 형태 - 서울대

- 2002년 기초교양교육원 설립
- 역할: 교육과정개발, 운영, 평가, 연구 등 전반적인 기초교육 담당
- 예하에 기초교육위원회, 기초교육운영위원회, 리더십센터 설치
- 졸업이수학점: 130~160
- 교양학점 구성: 36~44
  -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의 3개 영역으로 구성
  -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과목과 전공 학과에서 담당하는 교과목 혼재
- 기초교양교육원에는 원장, 부원장, 행정직원, 교육원 소속 강의교수, 연구교수가 있으며 주임교수는 각 전공학과 소속

33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기초교양교육전담기구 형태 - 서울대

- 기초교양교육원: 종합대학 내 지원시설로 분류

34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기초교양교육전담기구 형태 - 한국외대

- 2014년 교양학부를 미네르바교양대학으로 승격 설립
- 역할: 교육과정개발, 운영, 평가, 연구 등 전반적인 기초교육 담당
- 예하에 교양과정위원회, 공동연구위원회(교재연구, 창의적 수업, 글쓰기 교육, 교양교육자료 아카이브)
- 교양학점 구성: 32
  - 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유(선택)교양 3개 영역으로 구성
  - 교양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과목과 전공 학과에서 담당하는 교과목 혼재
- 학장, 부학장, 행정직원, 교양대학 소속 교수가 있으며 주임교수는 각 전공학과 소속

35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기초교양교육전담기구 형태 - 한국외대

- 미네르바교양대학: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분류

36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교무처 산하 조직 형태 - 고려대

- 기존 독립 기구로 존재하던 교양교육원을 2012년 교무처 산하 기초교육원으로 개편
  - "교양과 전공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행정적 조율이 가능한 교무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

- 교양학점 구성: 30~51
  - 공통교양, 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선택교양 4개 영역으로 구성
  - 교무처장이 주관이 되어 교무처에서 교양관련 모든 업무 담당
  - 기초교육원은 단순히 교양과정 수업 기자재 및 시설 관리 등 담당

37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사례 교무처 산하 조직 형태 - 고려대

38

II.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결론

- 어느 유형이 기초교양교육을 위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역사, 현실, 미래 방향 고려
  - 단위 대학의 성격, 대학의 다양한 행재정적 여건 등 고려
  -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인식의 재고
  - 교양교육 학사구조에 대한 지속적 데이터 수집과 체계적 분석 필요

39

참고문헌

강명구, 김지현(2010).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1(2), 327-361.

송혁준, 전진재, 이향주, 김지호(2014). 기숙형 대학 지원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40

3. 바람직한 교양교육 기관의 요건과 유형

| 정인모 | 부산대학교 전 교양교육원장

1. 서 론

한 개인이 제 아무리 어떤 일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 해도,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나 기구의 시스템(조직)이 바람직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방향이 잘못되어 시도 자체가 공허함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정치, 교육, 경제 등에서도 시스템을 어떤 위치에서 가동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즉 그러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어떤 일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교양교육의 내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관 부서나 담당 기구의 위상이 잘 구비되어있지 않으면 교양교육을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양교육에서는, 교양 교육 집행 기구의 위상,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을 실행하는 인적 물적 자원 구비가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교양교육집행 기관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교양교육기관의 보다 강력한 위상 정립과 이에 따른 교양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양교육 기관(기구)의 유형

한국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양교육원'(부산대) 혹은 '기초교육원'(서울대),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부형태의 교양교육 기관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다(연세대). 그리고 이 학부형태의 교양교육기관을 특화시켜 각 대학의 교육이념과 결부되게 이름을 덧붙인 경우가 있다(경희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서울의 몇 개 대학, 부산 경남의 인근 지역의 교양교육 담당 기관만을 살펴보았다.

2.1 부산 지역

	현재 명칭	홈페이지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http://cms2.ks.ac.kr/chr/main.do
고신대학교	없음	
동명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education.tu.ac.kr/default/main/main.jsp
동서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uni.dongseo.ac.kr/education/
동아대학교	융합교양대학	http://cge.donga.ac.kr/
동의대학교	동의지천교양대학	http://liberal.deu.ac.kr/main.do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http://cms.pknu.ac.kr/duem
부산가톨릭대	트리니타스칼리지	http://liberal.cup.ac.kr/main/main.asp
부산교대	창의인재교육원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culedu.pusan.ac.kr/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http://cms.bufs.ac.kr/ccis/html/main/default.aspx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http://genedu.silla.ac.kr/genedu/
영산대학교	기초 교양교육원	http://he.ysu.ac.kr/
한국해양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부	http://www.kmou.ac.kr/01intro/04_01_6_10.jsp

2.2 경남 지역

	현재 명칭	홈페이지
가야대	없음	
경남과학기술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양학부	http://www.gntech.ac.kr/web/cultured/home
경남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http://www.kyungnam.ac.kr/gh/main/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지원센터	http://fge.gnu.ac.kr/main/
인제대	문리과대학, 교양학부	http://homepage.inje.ac.kr/~general/
진주교대	교육문화관	
창신대	없음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직부	http://portal.changwon.ac.kr/home/flec
한국국제대	없음	

2.3 서울 지역

	현재 명칭	홈페이지
가톨릭대학교	교학과, 교양교육원, 창의교육센터	http://www.catholic.ac.kr/~elp/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글쓰기센터, 교양교육연구소)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www.korea.ac.kr/mbshome/mbs/university/subview.do?id=university_010301000000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교수지원, 학습지원, 이러닝지원, 글쓰기클리닉)	
	교양과정부(교양대학)	http://culture.kookmin.ac.kr/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https://dharma.dongguk.edu/?page_id=18306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http://www.dongduk.ac.kr/contents/main/cor/liberalst_1.html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http://home.sogang.ac.kr/sites/liberalartsedu/Pages/default.aspx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http://liberal.uos.ac.kr/liberal/main.do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http://gei.sookmyung.ac.kr/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양교육학부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http://ge.cau.ac.kr/introduce_worker.php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http://gs.hanyang.ac.kr/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각 학교마다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교양교육의 강도나 방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최근에는 교양교육 강화 추세에 따라 교양교육기관에 특수한 이름을 붙여 운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명칭이야 어찌되었건 명실상부한 교양교육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이 각 학교에서 일고 있는바, 이번에는 바람직한 교양교육 기구 형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 바람직한 교양교육 담당기관의 형태

부산대학교의 교양교육의 기본 방향이, 기초사유 강화, 인성교육, 통합적 시각 배양,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능력함양, 심화학습을 위한 기초지식 제공으로 나누어져 있듯이[1], 타 대학의 교양교육 방향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양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제대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위상도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양교육 기구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독립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양교육원(혹은 기초교육원)이든 학부대학 형태이든, 교양교육의 고유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타 기관, 이를테면 교무처나 기획처 등의 간섭, 혹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교양교육원장(혹은 기관장)은 반드시 학장급(혹은 그 이상)이어야 하며(경희대는 부총장 급), 교무회의 등 학교최고 의결기구에 속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1학년 이상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은 다른 타 대학 기관장(학장)을 설득 혹은 권유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는데, 학장급 이하의 위상으로서는 이와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운영위원 등 교양교육원 내의 소위원회에 타기관 당연직이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명실상부하게 교양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뿐 아니라 책임교수회 등도 교양교육의 질 관리를 담보해주는 가장 핵심적 소위원회라 할 수 있는 바, 수업운영이나 제반 수업 및 정책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할 때 교양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으면 교육의 실효를 얻기가 힘들 수도 있다.

넷째, 교양교육을 맡은 기관은 본부에 이를테면 책임교수 수당뿐 아니라 각종 세미나, 워크숍, 학회 참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출발이 교양교육이라는 것과 전체 재학생의 1/4 이상이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양수업을 어려움 없이 담당할 수 있는 교양강의동 독립 건물과 제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1)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2007, 2쪽.

4. 부산대학의 예

부산대학교에서는 2005년,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양교육원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설립 2년 전, 즉 2003년부터 교양교육원 설립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약 10명의 연구위원)를 수행했기 때문에 교양교육원 설립은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

부산대학교의 교양교육원 설립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교양교육과정을 하나로 수렴하여 관장하는 기구가 생겨나서 교양교육의 질 강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이 기구가 생기기 전에는 교양필수과목, 실용영어, 컴퓨터 과목을 관장하던 기구가 각각 언어교육원과 전산원에 흩어져 있었다면,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 관장하는 기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교양교육원이 생긴 후 2006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2)]

그리고 교양교육원이 설립되었을 때 교양교육원장은 당연히 교무위원급이었고 이에 따라 교양교육의 위상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부학장급인 부원장, 그 외에 운영위원, 책임교수 등 교양교육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교수진이 갖춰졌고, 행정조직도 강화되어 명실상부한 교양교육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체제를 갖추는 데는 부산대학보다 먼저 설립된 서울대 기초교육원의 모형을 많이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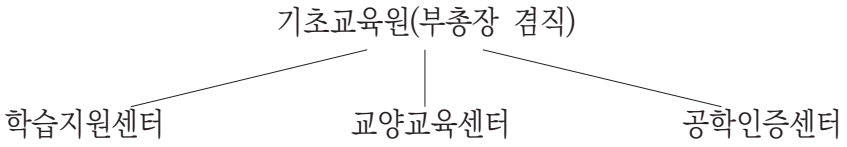
그리고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설립은 영호남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7년에만 해도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뿐 아니라 부산 인근의 사립대 등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부산대는 교양교육의 전진의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2009년 상반기 학교 전체 조직 개편에 따라 교양교육원도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었다. 본부는 서울대처럼 교양교육원 명칭을 기초교육원으로 바꾸고, 기초교육원 아래에 3센터, 즉 교양교육센터, 학습지원센터, 공학인증센터를 두었다. 이로써 실질적인 교양교육 실무는 교양교육센터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양교육의 기관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기초교육원장은 부총

2)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2007, 1-2쪽. 연구책임자는 초대 교양교육원장으로 재직했던 김유신 교수, 공동연구자로는 정인모, 유제분, 김기섭 교수가 참여 했다.
이 보고서에서 교양교육원이 수행한 일과 진행 중인 사항(특히 교육과정 개편 중심으로) 여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부산대학교의 교양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양교과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둘째, 이미 주어진 교양 교과목을 그대로 이어받아 필수 교과목은 물론 선택교과의 각 영역마다 책임교수를 두어 각 영역별 교양교과의 현황, 평가와 개선, 주관학과들과의 조정 등을 담당하여 교양교과 운영 전체를 파악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셋째, 교양교과목의 개설강좌 수가 적고 분반이 많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양교과목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교과목 다양화를 시행하였다. 넷째, 실용영어의 교육지침을 만들어 교양교육 교과목으로서의 실용영어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특히 이전 실용영어를 언어교육원 시절과는 달리 학교 전체 정책과 조율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다섯째, 의사소통교과목의 강사 확보의 다양성, 강의 평가와 개선, 기획 작업 등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여섯째, 교양교과목은 대개 단일 주제인데, 어느 한 전공에서 다룰 수 없는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집중탐구과정을 개설했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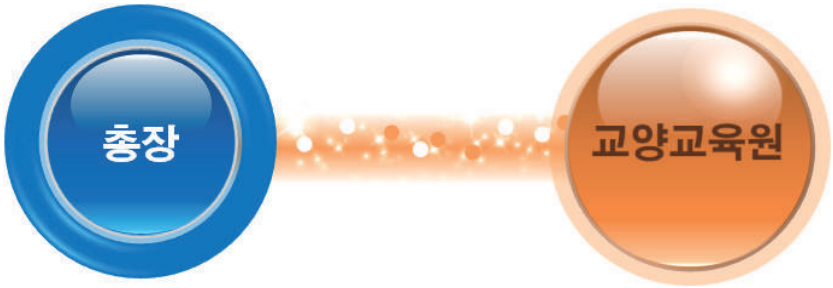
장이 겸직하게 되어있어 교양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교양교육원을 담당하는 교양교육센터장은 하나의 센터로 축소된 채 이전에 하던 교양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교양교육센터가 다시 교양교육원의 이름과 위상을 회복한 것은 2013년 3월부터였다. 이는 2012년 1월에 새 총장이 취임하면서 교양교육센터가 교양교육원 승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하지만 2005년에 교양교육원이 처음 생겼을 때의 위상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교양교육원으로 명명되고, 원장의 책임시수도 3학점으로 줄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원장 직책이 다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원장이 교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직원들 수도 증원되지 못하고 이전 센터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서 얻은 교훈은 기구가 한 번 축소되면 다시 원 상태로 복원되거나 발전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시대적 조류로 보아 교양교육원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는 시점에 기구를 축소 개편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교양교육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학교 기구조직 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그 기구의 장이 학교 주요보직 가운데 속하는지(예를 들면 교무위원급인지) 여부가 교양교육을 이루

어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조직이 힘을 가져야 제대로 된 교양교육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교양교육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장 이하 주요보직자들의 교양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부산대학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의 위상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SP 2016-9-282

제7회 교양교육 담당 보직교수 및 교직원 공동숙의

2016년 5월 인쇄
2016년 5월 발행

발행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구욱
발 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A동 23층
전화: 02) 6919-3951~4
팩스: 02) 6919-3959
홈페이지: http://konige.kr
E-mail: konige@kcue.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ISBN 979-11-6004-009-8 93370

제7회

교양교육 담당 보직교수 및 교직원 공동숙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TEL. (02)6919-3951~4 http://konige.kr

9 791160 040098 93370
ISBN 979-11-6004-009-8